



심 의 연 월 일	2011. 10. 24. (제5차 임시회의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심 의 안 건

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의 건

제 출 자	수석전문위원
-------	--------

1. 검토 필요성

- 영화 '도가니'의 문제 제기 및 사회적 반향, 아동·청소년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(시행일 2012. 3. 16.)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개정 움직임에 따라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
- 현행 집행유예 기준이 예측가능성 또는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, 영화 '도가니'의 실제 사건 및 최근 일부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영하여 현행 집행유예 기준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2. 검토 사항

가. 아동·청소년,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

- 아동·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
 - 강간 등 객체를 남자 아동·청소년까지 확대(제7조 제1항)
 - 장애 아동·청소년 대상 간음·추행의 처벌규정 신설(제11조의2)
 - 신고의무자 성범죄에 대한 1/2 가중처벌 규정 신설(제12조의2)
- 영화 '도가니' 실제 사건 양형 관련 양형기준 적정성 재검토
 -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유형, 형량범위, 특별양형인자 재검토
 - 장애인 처벌불원의 요건 및 적정성 재검토
-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(예상) 내용 반영
 -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 상향(징역 3년 이상 → 5년 이상)
 - 장애인 대상 위계·위력 간음죄 신설(항거불능 요건 불요)

나.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개선방안

- 현행 집행유예 기준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방안

- 성범죄 집행유예 요건 엄격화 방안

다. 기타

- ‘양형인자의 가중치 단위에 따라 유형별 출발 형량범위를 가중·감경하는 방안’의 논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
 - 장기적 과제로서 ‘양형인자의 가중치 단위에 따라 각 유형별 출발 형량범위를 가중·감경하는 방안’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 - 이에 대하여, 위 방안은 현행 양형기준의 기본틀과 완전히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
 - 1기 양형위원회에서 공개토론회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행 양형기준 방식이 결정된 것인데, 그 당시 채택하지 않기로 한 방안과 유사한 방식을 재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
- ‘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 및 이탈이유 기재 권고안 의결 제안’의 논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
 - ‘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 및 이탈사유 기재 권고안 의결 제안’도 추가로 심의안건에 포함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 - 이에 대하여, 양형기준을 벗어난 경우에 판결서에 기재해야 하는 ‘양형의 이유’는 ‘이탈사유’가 아니라 ‘당해 양형을 하게 된 이유’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, 양형위원회가 이에 배치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

3. 향후 계획

- 양형위원회 제5차 임시회의에서 ‘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의 건’과

관련하여 연구·검토할 사항과 범위를 결정하면, 그에 따라 전문위원단에서 본격적인 검토 착수

- 공개토론회(2011. 11.말)와 설문조사(2011. 12.) 결과 및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(예상)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작성 및 의결